

태평양주보

발행인 동지회 중앙부
발행소 931 노스 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사 장 리 정
주 필 김 창
번 집 김 창
전 화 850 849

제 1547호
서기 1965년 6월 4일 (음력 5월 5일)

전국적 해운 파업

내일 중순경 시작?

워싱턴) 28일 밤 에이 피) — 미국 전국 해운조합의 협정계약의 대부분은 6월 15일에 만기가 되는데 현상대로는 전국적 해운파업은 피할수 없는 모양이다. 이업의 파업은 만일 촉발된다면 대서양, 멕시코만, 태평양연안의 전지역에 파급할 우려가 있다. 에이 에우 일, 시아시오, 제 국제해운 조합장 "올.올"씨는 오늘 당지에서 개최중인 조합대회에서 가까이 타쳐오는 미국 해운계 총파업의 위기는 조합측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선박업자들의 책임이라고 심하게 선박업자를 비난하였다. 같이 동태에서 엄격한 "월드" 노동정관도 해운쟁의 위기를 지적하고 지금 노동조합 정부 삼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은 내일의 노동위기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건설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삼자의 관계는 선량하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 사실은 상호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하고 솔직한 의견을 말하였다. 6월 15일로 기한이 끝나는 제 해운조합의 계약은 약 12건이나 있어서 국내선 연안을 총망라하고 있다.

신국제기관 설치가 필요

"쥘스" 미국대통령이 설명

(텍사스주 워코 28일 밤 에이 피) — 전사가 주도제의 주탄을 텍사스주의 자택에서 보내기 위해 돌아온 쥘스미국대통령은 오늘 케어러 대라의 증언에서 연설. 그중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아직 주류중의 미군 약 2만명중에서 다시 1천 7백명을 가까운 장래에 철병할것을 발표한 외에 이번의 도미니카 파병에 대해서 취합 자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변명하였다. 사태가 가중이 변화하는 오늘의 국제정세하에서는 시기를 일찌 않준 행동이 요구된다. 도미니카의 경우 그 공포의 첫 수 시간중에 우리는 해야만할 일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결과 우리들은 도미니카의 민주주의에의 희망이 소수의 혼란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도미니카의 문제는 도미니카 국민에 의해서 처리될 것을 원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인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의 제일 큰 수확은 미주기구의 연합평화유지 군대가 조직된 것이다. 미주기구의 역사에서 최초인 평화유지연합군의 출현은 최고의 성과였다. 본쟁을 타서 제복과 폭행행위에 의한 승리의 책동은 급우에도 자주 있을 것이다. 빈개감이 빠른 사태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조직이 필요하다. 단지 수시간내에 몇대의 인간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결단과 동시에 또 실행의 시간이 아니면 안된다. 도미니카 린주미군중 이미 1천 6백명이 철의하였는데 또한 미주제국으로 부려의 파병을 기다려서 다시 1천 7백명의 미군이 철의 될것을 쥘스대통령은 시사하였는데. 그래도 1만 9천명의 가까운 미군은 계속 현지에 주류하게 된다.



(제 2 편)

(모스크바 5월27일 밤 에이 미) — 소련 공산당기권지 투라우다리는 오늘 소련 중공분쟁문제를 들고 중공은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본업을 막고 그의 통일을 가져 오는 유일의 수단은 세계 전쟁 이외에는 없다는 올린생각으로 비에트남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베-닌의 소아병적 적의 공산주의" 속의 이론을 인용해서 공격에 입문 강렬한 말로 비에트남문제에 대한 중공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공격하고 있다. 세계전쟁없이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공산주의 운동에 통일과 단결을 가져온다는 것은 오직된 생각이다. "라스크. 베닌"주의자들의 임무는 세계 전쟁의 촉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세력을 공동행동으로 동원해서 이러한 전쟁의 발단에 인도하는 연쇄사건의 발발을 사전에 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여야 할것이다. 당간에 현존하는 대립관계를 약속도 제국 주의의 친중적 태에서 중공전선을 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타당한 행위가 아니다. 비공산주의 세력을 포함해서 전세계의 진보적분자가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것은 국제적규모상에서 또 자본주의 국가내에서 제국주의 의 칙락세력과 사사우는데 있어서 없으면 안될 필수조건이다. 투라우다리의 논설은 비에트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려는 대신에 중공이 공업이 소아병적 적인중의를 표명하여 비에트남문제를 지기도 새로운 세계전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소련의 불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라스크 장관

미국의 결의를 표명

(와싱톤 27일 밤 공동) — 라스크 미국부장관은 26일의 기자회견 에서 비에트남에 대한 공산주의 원조에 대해 "정세는 중대하다 미국을 동남아세아로 부터 쫓아 낼수있다고 오해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라고 경고하였다. 라스크장관은 하오이 주변에 격어도 제2의 소련제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관련장치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을 명백히 하면서 중공 소련이 경쟁하면서 하노이 정권원조에 나을 위험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이것들을 넘겨준다. 라스크장관은 또 "미국정부가 전쟁의 확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 반격을 빌지 않고 전쟁을 확대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라고 부가 하였다.

테이라대사 주말에 귀국

미국정부로서는 주조건 도의 기라의 요설번식을 모두 공산주의 피라고 있는한 북방폭력을 계속 하여 대비에트남 전쟁을 악화하지 않으며 한달 입장에 있으며 이 주말에는 테이라 주남비에트남 대사의 귀국을 기다려 새로운 작전회의를 열 예정이다.

비에트남 대공세

(사이공 29일 밤 에이 미) — 남비에트남대공세조를 사하고 "반. 위구앗트"수상과 "안. 학수" 국가 수석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있기때문에 레이라 주남비에트남 미국대사의 확실히 방문은 또 연기되었다. 이곳은 24시간이내에 두번째의 출발연기이다. 동대사는 오는 월요일 와싱톤에 향해 출발의 예정이다.

미군 사관 1명 사망

오늘부터 비에트남공산군의 활약은 골히 활발적하여 왔다. 남비에트남 북부삼성에서는 비에트남군의 공격이 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 항해사의 비에트남의 대공세의 전조가 아닌가 보고있다. 오늘의 전투에서 미군사관 1명과 남비에트남병 약간이 전사하였다. 정부군은 반격을 하였는데 공세의 우세는 역시 비에트남 공산군측에 있는 모양이다. 공산군은 상대를 온안시키는 작전을 취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녔 기지의 미해병대를 중 진선에 투입할것도 고려중인 모양이다. 미공군은 함재기와 오용해서 북비에트남 국내를 오늘도 폭격하였다.(다음장의 계속합니다)

(제 3 편)

젯트 전투기에 오워된 미군 예우 105 "산다치"우"6기는 극경 북방 백삼십마일의 "온뉴"도의 방공기지를 공격 고사로 테이라당 건물등을 폭파 전기 무사히 귀환 항공모함 오리스카니 호함 재 8기는 하노이 남방 백삼십마일의 마리를 두개나 폭파 그의에 "바지"선에 손해를 주고 전기 귀환하였다.

대원분 반대는 곤란

미국무성 어업문제로 경고

(와싱톤 28일 밤 공동) — 미국정부는 28일 일련의 북미제 생선어획에 대한 국내의 반대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무성대변인은 동업의 기자회견에서 27일 일련에서 열린 시위를 질망후 "우리는 어족자원을 보존하려는 미국어업계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생선반대는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않다. 이것은 도덕적 국제회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정부의 노력을 손상시키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또 동 대변인은 일본의 생선 어획은 북미제생선어획조약에 의한 것으로 조약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상항에서 일본물품 배척시위

미국어업회의소 소속의 어민은 28일 오후 상항의 일본항공회사와 시내5개소의 백화점에서 10인 내자 15인에 의한 일본물 배척시위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생선을 약탈하고 있다"등의 표시를 걸고 기세를 올렸다. 어민회의의 "월드" 서기장은 동일 이문제는 아시아를 만의 지방적인 문제가 아닌것을 알리기 위해 상항에서 시위를 하였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규모로 일본물 배척을 전개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중이 이에 어느정도의 관심을 보일지는 의문이며 실제로 배척에 발전될것지는 아직도 모른다.

미국의 인간 위성선

역사상 처음의 "관디북" 실험

(케이프.케네디 5월29일 밤 에이 미) — 항공우주국은 28일 2인승 인간 위성선 "제미니 4호"의 발사는 전지의 고장때문에 연기하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 전지의 수리가 즉시 가능한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6월3일 예정대로 "제미니 4호"를 발사한다고 다시 발표 또 이 인간 위성선에서 역사상 처음의 "관디북"실험을 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명백히 하였다. 동계획에 의하면 "에드워드. 화이트"2세와 "제임스. 맥데이빗"양 우주비행사가 타고 약 4일간에 걸쳐 지구를 62주하는데 그때 켈스의 발사에 쓰는 라켓트의 25회트까지에 가까이가 와이트비행사가 3 캔셀백에 나가 제2단 라켓트에 손이 닿는데 까지 가까이 접근한다는 그러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실험에 성공하면 소련에 대한 더떨어짐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게 된다.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방미라고 귀국

(서울 27일 밤 공동) — 존슨미국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방문중인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은 10일간의 미국방문 임무를 마치고 27일 저녁 미대통령 전용기트 서울교회의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동대통령은 공항에서 박정희 같은 귀국경력을 하였다. 나는 미국방문중 미국의 지도자에 동남아세아 문제등에 대해서 좋은의 화합하였는데 (5.7.2.2) 의견의 차이가 없는것을 알았다. 한미수교의 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밝힌 것 같이 미국이 공후에도 계속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한것을 미국방문의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현행 소비세 대책 강세안 하원 통과 七月一日 발표(?)

(워싱턴 6월 2일 밤 에이 피) — 43억불의 감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소비세의 부분적 폐지 또는 간세안은 오늘 하원을 통과 상원에 회부되었는데 상원에서의 조기 가결도 확실하다고 한다. 본안 속 정부가 목적하는 7월 1일의 발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실현되면 자동차세등 평균하여 75불이나 5월 15일의 구입에 돌아가 감세된다. 그의 7월 1일부터 전행 될것으로 보이는 품목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석류, 화장품, 핸드백, 모피제품, 보우링공, 당구, 오락기구 등 폐쇄 운동용구 레디오, 텔레비전, 축음기, 레코드, 악기, 카메라, 필름, 냉장고, 공기냉장장치, 단년필, 전기, 개스기구등의 가공세, 하원에서의 표결에서 반대는 소수였다. 민주당 확약당이 다 찬성지지가 다수였고 하원세출위원장 "윌버. 필스"씨(아-캔션출 민주당)등 현행법이 생긴 당시 사치품이라고 지정된 전기기구(냉장고 스토브)레디오, 텔레비는 오늘에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고 이번의 감세는 현행세제 개혁에 의 제일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극력 동안을 지지하였다. 공화당측 선일위원 "존. 번스"하원의원(위스칸신 주 선출)도 현행 소비세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그 대책폐지를 강조하였다. 개소린 트릭, 타이야 등에 대한 현행세는 도모비의 재원으로 서 술, 연초세와 같이 계속된다.

인사 소식

예보한봐와 같이 본향 류애주여사는 지난 5월에 본향 모모 부인들과 동반하여 근친차로 귀국하여 불일을 필하고 수일전에 무사히 회환하였습니다.

우리일반이 모두가 잘 아는 본향 정근영여사는 북미대륙에 이사하여 살고 있는 차녀댁 가족들을 반문차로 지난 5월 중순에 도미하였다고 하는데 미주에서 약 3,4개월 동안 체류하며 수양을 하여 가지고 회환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코랄라 류희진씨 동부인은 소과사도 인하여 지난 5월 20일에 출항하여 불일을 필하고 24일 아침 힐로항 항동기면으로 회환하였다고 알립니다.

사망보고

동지회 호장부원이신 고 최관홍씨는 숙환으로 호랭동안 신고중 회춘에 기쁜날을 다시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지난 5월 28일에 89세를 일기로 운명하신후 장례식은 6월 2일 상오 9시 11시 7분 기 오아호 기념공원장터에서 위하와 한인 기독교회주임 김용식목사님의 주례하의 기도회와 영결식을 거행한 후 고인의 화장한 재를 동장지에 매장하였습니다.

연	계	금	적	립	금	
리	하	홍 수 순	10,00	가 이 무 기 최	백 렬	2,00
리	하	오 기 임	10,00	가 이 무 기 최	매 리	2,00
리	하	토 매 니	10,00	리 리 하 홍 우	순	2,00
가	이 무 기	최 백 렬	10,00	리 리 하 오 기	임	2,00
가	이 무 기	최 매 리	10,00	파 이 아 김 영 호		2,00
오	항	백 봉 조	10,00	오 함 낙 봉 조		2,00
고	나	조 신 근	10,00	고 나 조 신 근		2,00
호	항	김 내 수	10,00	외 아 무 아 오 명 화		10,00
가	이 무 기	최 백 렬	10,00	오 함 최 애 타		10,00

망명노인이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남은) 김 인 서

건국대통령이 원용이냐? 국부이냐?

1960년 4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下野)한 다음날 최희송씨는 의정당상에서 "이승만은 민주반역의 원용"이라고 단죄했고 동시에 미국 아이크대통령은 "이승만박사는 한국의 국부시오" 라고 반문했다. 최씨의 눈이 밝느냐? 아이크의 눈이 어두우냐? 한인의 눈알은 새까맣고 미인(美人)의 눈알은 새파랗고 코눈은 다른 모양이다. 최씨가 잘보고 아이크가 잘못보았는지 독자제위에게 맡기거나 최씨는 이견 없이 정확지사였고 아이크는 제2차 세계대전시 자유진영의 총사령관이었다. 그의 눈이 남의 나라 원용을 국부로 잘못보는 눈이라면 승전했을 수 없다. 아이크의 외교예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8년간 "반공프로젝팅" 이니 "돈내라" "무기보내라" "반미상오방위조약이니" "북진용일이니" "응일아니면 죽임" 하고 대드는 이대통령에게 고충을 받은 아이크다. 아이크는 "이대통령은 제민족 제나라 위해서 미친 사자같은 덩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대통령은 고충감이나 한국에는 국부라"는 말이다. 아이크 눈에는 "한국의 국부"가 조선사람 눈에는 "한국의 원용"이나 민족적 개조한 눈이 그려나? 나는 건국대통령이 원용된 나라 백성된 것이 한 없이 슬프다. 프랑스혁명때 루이 16세왕은 혁명재판을 받고 단두대에 서서 세마디의 기도를 남기고 목이 떨어졌다.

- (1) 오, 하나님이지여 나는 이 단두대에 설 죄가 없습니다.
 - (2) 나는 나를 죽이는 죄를 용망하지 아니합니다.
 - (3) 주여, 내피때문에 조국에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 이대통령도 하야하면서 다음세마디를 남기였다.

- (1) 여러분 반공(反共)을 잘 해주시오.
- (2) 아이크 대통령이 "귀하는 한국의 국부입니다"란 위문에 대하여 "역사가 말 하겠지요"
- (3) 미국모친문사에서 묻은 말에 답하여 "한국을 잘 도와주세요"

두분 패자의 삼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승자의 악언보다 패자의 선언(善言)이 아름답구나 나는 승자의 악언을 버리고 패자의 선언(善言)에 유노라 루이 임금은 36세의 소장이었지만 불란서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오. 이승만박사는 85세의 고령이지만 이나라의 첫대통령이란 역사에 나는 실망한다. 이박사가 만일 둘째 대통령으로 원용되었다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다.

거러지 외교 반세기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잡지에서는 "이박사가 라국 외교가들의 점심이나 얻어먹고 돌아다니었다"고 헐었다. 사실 거러지 외교가 있다. 이박사는 상해에서 대통령 3권을 예언하는 모여사와 도산선생을 작별하고 스텔스히 워싱턴에 가서 군비회담에 옵서버로 참석했고 워싱턴에 한국외교부를 세웠다. 허모씨를 데리고 손수발을 지어먹으면서 외교하던 이외교부는 우리정식대사가 가기까지 계속했다. 나라는 2000원 가지고 간 이박사가 거러지 외교가(外交家)가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운남시선(雲南詩選) 운남이란 말은 이승만 박사에 "운"입니다

太平洋舟中作

一身泛泛水天間
萬里太平幾往還
到處尋常形勝地
夢魂長在瑯琊山

래명양 배 위에서

물 따라 하늘 따라 어느 곳 가서 돈지
먹 드는 이 물 보잘 것 없고
만리길 캐명양을 글 속에도 내나라
몇 번 오 간고 한남산입네
(다음 호에 계속하겠음)